＝戰 術 問 題＝

戰略·戰術의 21原則

筆者 原 田 稔
譯者 教官 金 用 大

〈內容〉

〈다음의 戰略·戰術의 原理·原則은 思考의 失手나 欠陷을 막는 Check list이다.〉

1。戰略과 戰術

戰略과 戰術은 結局 戰爭의 術策이다。実際 戰闘行為는 이를 作戰이라고도 하며 戰闘라고도 한다。戰略은 作戰에 対応하고 戰術은 戰闘에 対応한다。원래 陸軍에서는 師団 以下의 運用 術策을 戰術이라고 했고 師団 以上 大兵団의 運用 術策을 戰略이라고 했다。지금도 空軍이나 海軍에서는 이 観念을 適用시키고 있다。이를테면, 美 空軍에서는 敵国의 政治·経済·軍事中枢를 攻撃할 만한 戰爭 遂行力을 戰略空軍이라고 부르고 있다。그리고 地域的인 作戰을 担当하는 空軍力을 戰術空軍이라고 하며, 日本과 韓国에서 展開하고 있는 第5空軍은 戰術空軍이다。

陸軍의 1個 師団과 空軍의 1個 戰術空軍과는 作戰 規模에 있어서 比較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陸軍은 陸軍 나름대로 空軍은 空軍 나름

대로 戰略이 戰術보다도 大規模的이라는 것은 変함이 없다.

戰術은 어느 武器體系의 運用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矛盾된 말이 아니다.

2. 戰略·戰術의 學習

戰略 戰術을 学習하려면 여러가지 方法이 있다.

(1) 原理 原則의 学習

(2) 戰争 演習

(3) 実地 訓練

(4) 戰史 研究

(5) 実戰 参加

戰闘가 学問이 아니고 生死가 걸려 있는 実践行為인 以上 実地訓練이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実地訓練은 많은 制約이 있기 때문에 期待할 수가 없다. 特히 大兵団의 実地訓練은 많은 制限이 따른다.

그래서 図上訓練을 実施하게 되는데, 「戰争을 学習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戰史의 深刻한 研究에 의해 처음으로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戰史 研究家는 말했다.

그러나 大部分이 原理 原則을 배우고 이를 理解하기 위하여 図上訓練을 実施하고 있는데, 이에 많은 時間을 消費하고 있으며 原理·原則中心型 또는 原理.原則 先行型을 배우는 傾向이 많다.

3. 原理·原則의 効用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들도 原理 原則을 배웠다. 이를테면 그 一部를 暗記할 때까지 반복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戰略이나 戰術에 熟達되고 훌륭한 戰術家가 되는 것도 아니다. 勿論 暗記해두면 学科試

驗에는 多少 有利하다. 그리고 原則에 関해서 대담하게 理論을 展開해 나가면 戰術家로서의 名声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実戰에서 勝利를 거두는 것과는 関係가 없다.

원래 戰爭은 그때 狀況을 스스로 創案해내야 하며, 한 定形과 固定觀念에 의해 処分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 先人들은 自信의 智慧를 짜서 敵에게 이기기 위한 方策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를 模写的으로 伝하고 있는 것이 戰史다. 戰略·戰術의 原理·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数많은 戰例中에서 共通的인 法則性을 採択하여 抽象帰納한 것으로서, 그것은 이미 観念이며 実際로 流動되는 戰爭 狀況과 그 속에서 움직이는 힘 그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事態를 説明하기 위한 하나의 理論的 概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抽象帰納된 原則만이 実際 戰爭 法則의 説明이 아니라는 것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原理·原則을 아무리 공부한들 훌륭한 戰術家는 되지 않는다. 原理 原則을 배운다는 것은 戰略·戰術의 一部를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태여 原理·原則을 배울 必要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戰略이나 戰術을 構想하려면 原理·原則은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実際 狀況下에서 어떻게 勝利를 거둘 것인가 하는 智慧를 짜내어야 한다. 自身의 構想案이 決定된 後에 原理·原則을 考慮하는 것이 有益할 것이며, 結局 原理·原則은 思考의 欠陷을 막기 위한 点検項目으로 活用하는 것이 現実的이고 또 効果的일 것이다.

原理·原則은 戰史를 理解하는데 便利하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戰略·戰術은 構想力을 案出해낸 다음 原理·原則을 比較해보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原理·原則이 있는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原理·原則의 吟味와 選別

原理·原則을 活用하려면 原理 原則의 性質을 吟味하고 選別해야 한

다.

戰術書나 戰略書에 있는 原理·原則은 數가 많다. 그 중에는 性質이 다른 것이 많은데 먼저 이것을 吟味해 보기로 하겠다.

가. 오랜 期日을 두고 不変의 価値를 지닌 것과 時代의 変化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다(恒久性과 暫定性=恒暫).

나. 根幹性과 枝葉性이 있다.

다. 戰力運用에 適用되는 것과 戰力造成에 適用되는 것이 있다 (戰力運用 原則과 戰力造成 原則).

라. 어떤 나라의 主義나 方法으로 主張되는 것이 있다(教理).

마. 指揮 運用의 順序와 注意事項도 있다.

또 原理·原則의 適応性에 関해서 考慮할 必要가 있다. 個個의 原則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戰術原則이 重視되고 戰略原則은 適応性이 희박할 때도 있다. 또 戰略에 適応性이 많다고 해도 陸戰과 海戰과 空戰은 그 趣旨가 다를 때도 있다.

요컨대 戰術 戰略의 実行 主體에 따라 適応性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国家의 最高 統帥権者, 軍事 最高 指揮者, 軍司令官, 師団長, 聯隊長 그리고 中隊長 等等.

数많은 原理·原則中에서 上下左右로 適応性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을 選定해보겠다. 点検項目이 너무 많아도 実用性이 없다. 따라서 그 項目을 標題로 어슴푸레하게나마 記憶해둘 必要가 있다. 그리고 最少限 다음 21個 条項은 回顧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본다.

選別함에 있어서 筆者의 個性과 主観이 勿論 内包되어 있다는 것도 事実이다.

5. 原則 21個 条項

選別한 原則 21個 条項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겠다.

21個 原則

第 1 条 目的의 確立

第 2 条 戰力의 優越

第 3 条 創造性

第 4 条 綜合 調和

第 5 条 情報

第 6 条 自己評価

第 7 条 状況判断

第 8 条 簡明

第 9 条 所要戰力

第10条 戰力自立

第11条 聯合戰力

第12条 多様한 活用

第13条 効率的 運用

第14条 主動性

第15条 攻撃

第16条 要時要点

第17条 重点形成

第18条 敵의 戰力発揮를 妨害한다。

第19条 虛点을 利用한다。

第20条 指揮 統一

第21条 사람을 利用한다。

〈出處 軍事研究(日) 1981. 3月號〉